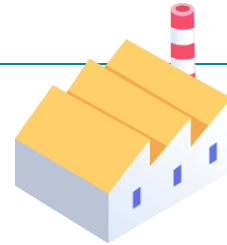


사우디와 미국의 123 협정

유틸리티 Weekly | 2026.07.24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4.4% 상회했다. 22일 종가 기준 WTI 87.7달러/배럴(WoW +8.6%), 미국 천연가스 2.9달러/mmbtu(+0.7%), 아시아 LNG 현물 22.0달러/mmbtu(+10.4%), 호주산 유연탄 130.9달러/톤(+1.6%), 원/달러 환율 1,477.4원(-0.6%)을 기록했다. 예멘 후티 해상 봉쇄 참여로 원유 물류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LNG 현물 가격 상승은 4분기 이후 원가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향 원전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권위주의 진영과 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자유주의 진영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규제 요소인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 기술 이전의 전제조건인 123 협정이 대통령 승인 이후 의회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부분은 IAEA 추가의정서 채택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는 반면 추가의정서 가입 없이 미국-사우디 안전조치 협정을 통해 통제될 예정이다. 총 90일의 연속 회기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검증 절차 강화 또는 완화 여부는 향후 확인될 전망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우려 또는 미국 의회의 반발 등이 관건이다.
- 만약 123 협정이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원자력 산업만 볼 때 향후 사우디향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 입찰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원전 사업에 참여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진척 사항이 없었던 것은 123 협정의 부재로 해석된다. 하지만 IAEA 추가의정서 가입을 우회하는 방식일지라도 협정이 마무리된다면 과거와 달리 현실성 높은 프로젝트로 재평가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 인프라 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외국 경쟁사는 배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언급된다. 노형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기자재 밸류체인은 여전히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태양광 경쟁입찰 시장이 1GW 규모로 개설된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전 마지막 입찰이며 상한가격은 147.7원/kWh로 전년대비 5% 가량 낮아졌다. 탄소배출량 기준 1~4등급을 차등하여 우대 가격을 적용한다. 2023년부터 장기고정가격 입찰 흥행 실패가 이어졌고 향후 RPS 제도 폐지 이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올해에도 상한가격이 낮아진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확정되었고 초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되지만 도로는 별도의 이격거리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도로변 태양광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는 최대 500m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이격거리가 정해질 수 있다.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 신청이 없거나 이용신청 후 1년 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이용계약 체결 후 사업진척 점검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중간점검 제도로 시행된다. 일부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보이며 향후 전력망 활용도 개선이 예상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3일 종가 기준 25,500원으로 전주대비 0.2% 하락, YTD 145.7%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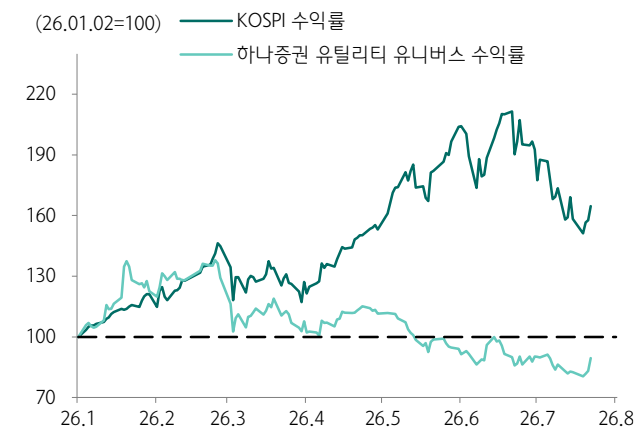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환율 제외 원가 부담 증가. 신규 기저전원 확대는 장기 성장 동력이나 단기적으로는 원가 변화에 집중
- SK이터닉스: KKR-SK JV와의 역할 조정에 관심 필요. 개발 역량이 집중될 경우 PPA 사업 수행 능력 크게 증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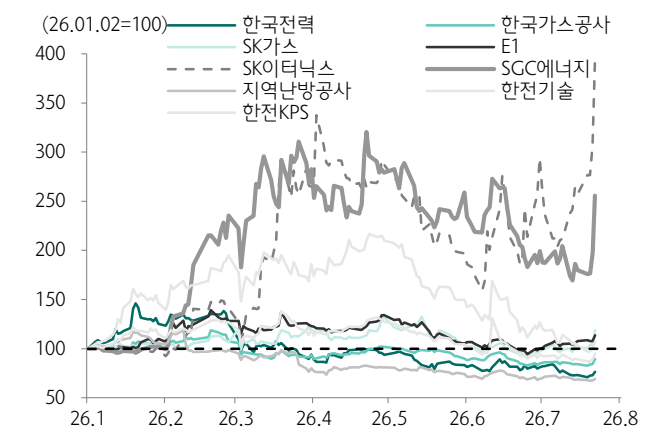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7/23)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Pt)	7,096.89	4.1	(2.7)	(7.2)	(20.5)	(32,310)	42,075	(10,559)
한국전력	35,600	4.6	1.1	(6.7)	(8.2)	(238)	688	(475)
한국가스공사	34,400	6.2	6.5	4.6	7.2	11	59	(71)
SK가스	259,500	16.9	22.7	20.1	27.5	15	14	(29)
E1	91,800	5.4	10.5	13.1	16.5	6	8	(13)
SK이터닉스	80,600	55.0	89.6	52.9	64.3	560	1,292	(2,040)
SGC에너지	54,700	42.1	33.4	36.2	33.4	6	(13)	7
지역난방공사	65,400	0.9	(1.4)	(1.2)	(0.9)	(2)	4	(2)
한전기술	96,100	3.7	0.2	(11.3)	(9.8)	3	49	(52)
한전KPS	46,450	6.7	3.8	2.9	2.7	38	11	(49)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주요 뉴스

1. 국회 53일 만에 정상화...AI·반도체용 'PPA법' 논의 본격화 - <https://bully.kr/1GM5k1x>

- 가장 주목받는 법안 중 하나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 앞서 국회 과방위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 직접 PPA 허용을 최종 법안에서 제외
- 전력공급 조항이 빠진 채 특별법 통과. 원전·LNG PPA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논의 예정

2. 발전사업허가 후 1년 내 망이용신청 않으면 접속권 상실 - <https://bully.kr/FAfxEU8>

- 전력당국이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만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 취득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이내 망 이용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접속권 효력 불인정
-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를 통해 시행하던 사업진척 점검도 1년으로 단축

3. 호르무즈 긴장 고조에 LNG 운송 차질...글로벌 가스가격 재 상승 - <https://bully.kr/6Mu4BhL>

- 지난 7일 카타르 국적선이 AIS를 끈 상태에서 항해하다 공격을 받은 이후 카타르 LNG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사실상 중단
- 사고 이후 카타르는 추가 LNG선을 출항시키지 않았으며 UAE 역시 단 한 척의 LNG선만 해협을 통과
- UAE와 연계된 VLCC 2척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리스크는 더욱 확대

4. 태양광 입찰 상한가 사상 첫 140원대 진입...시장은 신중론 - <https://bully.kr/7FTr5mU>

- 1년여 만에 1GW 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실시. 입찰 상한가격은 147.686원/kWh로 전년대비 약 5% 하락
-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보급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방침
- 보급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가격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

5. 용량시장도 출자승인도 ‘스톱’...LNG 불확실성에 발 묶인 집단E - <https://bully.kr/DaR6rRE>

-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은 16일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 EPC 입찰 공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또다시 연기
- 재정경제부의 출자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 SPC 설립과 EPC 입찰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지는 상황
-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재생열 중심으로 구성하고 LNG 등 화석연료 기반 설비는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

6.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11년 앞당긴다... 김성한 장관, 현장 점검 - <https://bully.kr/9XNhqOg>

- 국가산단은 1단계로 2030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인근 지역 선로 보강을 통해 필요 전력을 공급
- 이후 2단계로 2036년까지 기존선로 용량 증설 등을 활용해 확대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
- 최종적으로 2042년까지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활용해 반도체 산단으로 전력을 공급

7.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태양광 도로 이격거리 제외 - <https://bully.kr/9iSpDW>

-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
- 당초 검토안에 포함됐던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결정
- 재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태양광은 도로 위치와 상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됨

8. 11월 SMR 사전검토제 시행...원안위 “신청 의향 기업 3곳” - <https://bully.kr/9XNhqPE>

- 한국기업비즈(BEZ),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이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검토 중으로 알려져
-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성 자료를 미리 검토
- 개발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SMR 업계가 도입 요구.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

9. 난방전기화 히트펌프 선정에 보일러제조사 군침 - <https://bully.kr/FhQEAy3>

- 정부가 난방전기화를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제품 2차 공급업체 선정 중
- 기후부는 5월 1차 난방전기화 공기업 히트펌프 대상제품에 3개사(삼성전자, LG전자, 대성히트에너지스) 10개 모델을 선정
- 이후 보일러 및 공조업체 중심으로 히트펌프 대상제품 2차 공모 참여를 적극 준비

10. “자가용 재생E 발전 인증서 발급·거래 가능해진다”...시범사업 추진 - <https://bully.kr/2UIObmi>

- 8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 추진
- 주택용,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
- 인증서 형태로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 등에 판매 가능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7월 22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477.4	1,485.9	1,530.2	1,478.7	1,380.8	1,440.6	(0.6)	(3.4)	(0.1)	7.0	2.6
달러 인덱스	Pt	101.1	100.5	100.8	98.6	97.4	98.3	0.6	0.4	2.6	3.8	2.9
WTI	달러/배럴	87.7	80.7	80.4	94.8	67.6	57.3	8.6	9.1	(7.5)	29.8	53.1
Brent	달러/배럴	94.1	85.1	80.4	102.0	68.7	60.9	10.6	17.0	(7.7)	37.1	54.7
Dubai	달러/배럴	87.9	79.1	73.0	101.9	70.6	60.9	11.1	20.5	(13.7)	24.5	44.4
Bunker	달러/톤	598.2	544.2	465.2	643.3	402.1	341.8	9.9	28.6	(7.0)	48.8	75.0
천연가스(HH)	달러/MMBtu	2.9	2.9	3.2	2.7	3.3	3.7	0.7	(9.0)	8.5	(9.8)	(20.3)
아시아 LNG	달러/MMBtu	22.0	19.9	15.3	16.1	12.1	9.6	10.4	43.7	36.4	82.3	129.2
유연탄(호주)	달러/톤	130.9	128.8	144.0	132.8	110.1	107.5	1.6	(9.1)	(1.5)	18.8	21.7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판매실적 추이

한국전력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6,061	6,051	0.2	6,479	(6.4)	33,965	33,644	1.0
	일반용	9,801	9,498	3.2	10,182	(3.7)	57,065	56,006	1.9
	산업용	22,387	22,926	(2.3)	22,803	(1.8)	113,486	116,096	(2.2)
	기타	2,682	2,744	(2.2)	3,265	(17.8)	18,886	19,607	(3.7)
	합계	40,931	41,219	(0.7)	42,728	(4.2)	223,402	225,354	(0.9)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9,143	9,886	(7.5)	9,095	0.5	53,277	52,396	1.7
	일반용	15,777	16,032	(1.6)	15,378	2.6	96,189	94,438	1.9
	산업용	37,099	39,113	(5.2)	38,648	(4.0)	200,958	205,711	(2.3)
	기타	2,930	3,659	(19.9)	2,998	(2.3)	20,826	21,297	(2.2)
	합계	64,948	68,690	(5.4)	66,119	(1.8)	371,250	373,843	(0.7)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50.8	163.4	(7.7)	140.4	7.4	156.9	155.7	0.7
	일반용	161.0	168.8	(4.6)	151.0	6.6	168.6	168.6	(0.0)
	산업용	165.7	170.6	(2.9)	169.5	(2.2)	177.1	177.2	(0.1)
	기타	109.2	133.4	(18.1)	91.8	18.9	110.3	108.6	1.5
	평균	158.7	166.6	(4.8)	154.7	2.5	166.2	165.9	0.2

한국가스공사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1,177	1,130	4.2	1,349	(12.8)	9,824	9,961	(1.4)
	발전	1,198	1,263	(5.1)	1,321	(9.3)	7,447	6,933	7.4
	합계	2,375	2,393	(0.8)	2,670	(11.0)	17,271	16,894	2.2

지역난방공사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천Gcal, GWh)	열	579	646	(10.4)	816	(29.0)	8,396	8,706	(3.6)
	냉수	28	23	21.7	17	64.7	81	73	11.0
	전기	884	620	42.6	1,172	(24.6)	6,663	6,897	(3.4)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7월 16일(목)	7월 17일(금)	7월 18일(토)	7월 19일(일)	7월 20일(월)	7월 21일(화)	7월 22일(수)
SMP(원/kWh)	최대	159.83	155.22	156.47	155.63	159.88	160.34	165.72
	최소	92.74	104.10	93.05	90.43	92.74	103.21	93.29
	가중평균	140.18	137.02	133.65	111.62	139.43	141.04	140.07
수요예측(MW)	최대	84,162	76,353	72,587	66,819	81,222	85,005	86,764
	최소	56,123	56,992	54,684	51,535	51,614	58,149	56,955
	가중평균	72,100	67,782	64,362	58,625	69,925	72,657	72,719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최소전력(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시간대	금년	시간대		
7월 16일(목)	159.7	102.6	87.5	82.5	6.1	17시	60.5	05시	15.1	17.3
7월 17일(금)	159.7	99.9	80.6	81.6	(1.3)	20시	60.1	06시	19.4	24.1
7월 18일(토)	159.7	98.8	74.4	70.4	5.7	20시	57.9	06시	24.4	32.8
7월 19일(일)	159.7	99.5	73.2	73.6	(0.5)	20시	54.8	06시	26.3	35.9
7월 20일(월)	159.7	103.5	85.1	86.6	(1.7)	19시	55.2	04시	18.4	21.6
7월 21일(화)	159.7	103.8	87.5	88.9	(1.5)	19시	61.3	05시	16.3	18.6
7월 22일(수)	159.7	103.2	88.7	89.5	(0.9)	19시	61.6	05시	14.5	16.3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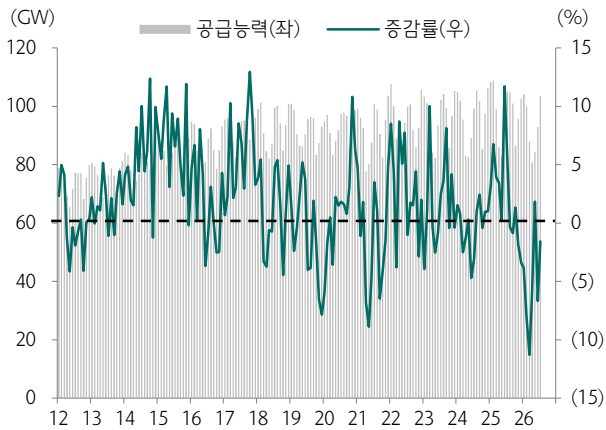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7월 4주차)

석탄	당진	#5 : 3.30 - 8.5
	보령	
	신보령	
	삼천포	
	여수	
	영흥	#2 : 1.1 - 9.21 / #4 : 7.4 - 7.19
	태안	
	신서천	
	하동	
	삼척그린	
	북평	
	고성	
	강릉안인	
	삼척화력	
국내탄	동해	
원자력	고리	#3 : '24.9.28 - '26.12.31 / #4 : '25.8.6 - '26.12.31
	신고리	
	한빛	#1 : '25.12.9 - '27.3.31
	한울	#4 : 5.18 - 7.31
	신한울	
	월성	#2 : '25.9.1 - '26.8.12 / #3 : '25.9.26 - '26.7.22 / #4 : '25.7.18 - '26.9.11
	신월성	
	새울	#1 : 7.2 - 8.31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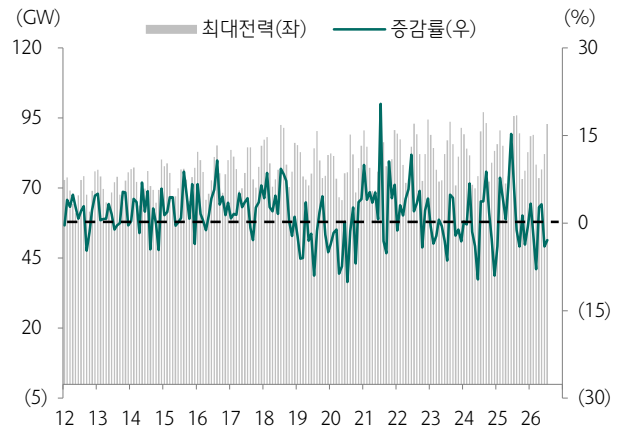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YoY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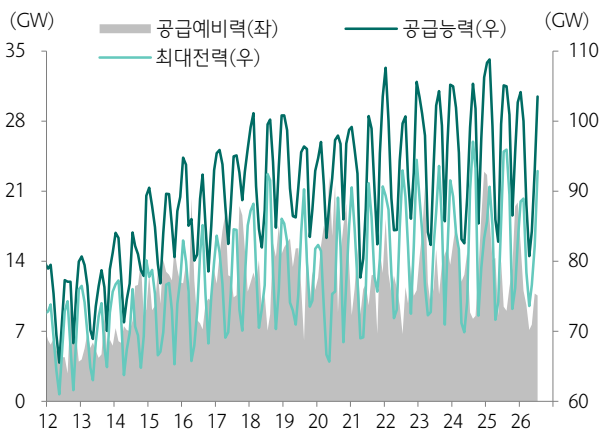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YoY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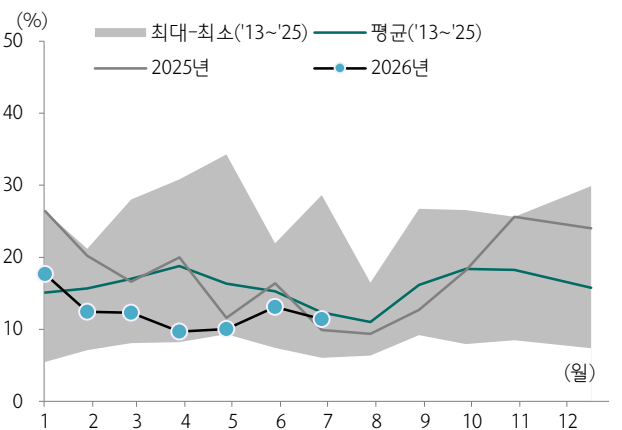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YoY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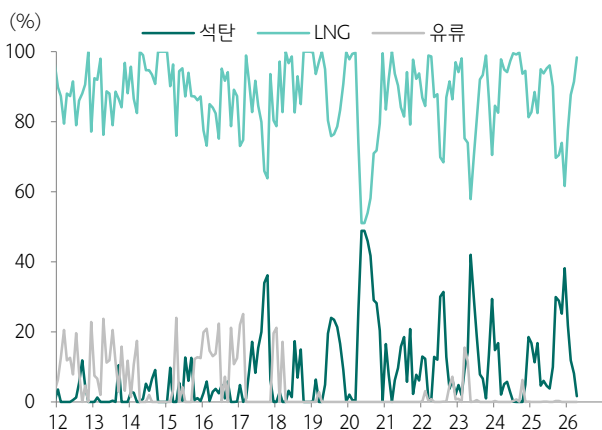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7월 13일 최대수요 기준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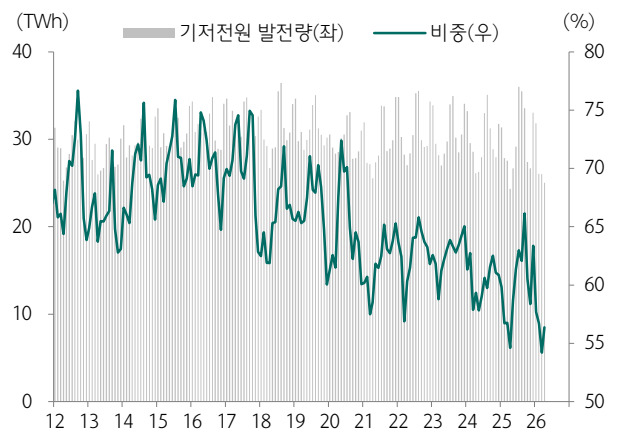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4월 기저전원비중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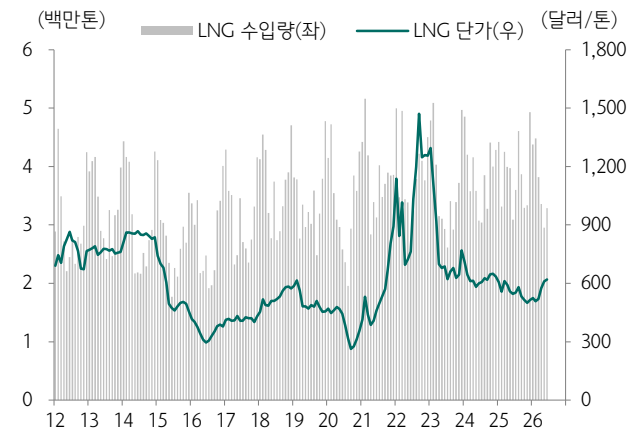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5월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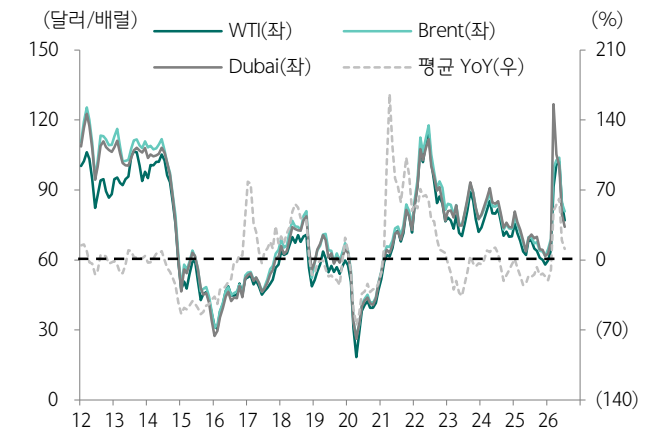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6월 YoY +6.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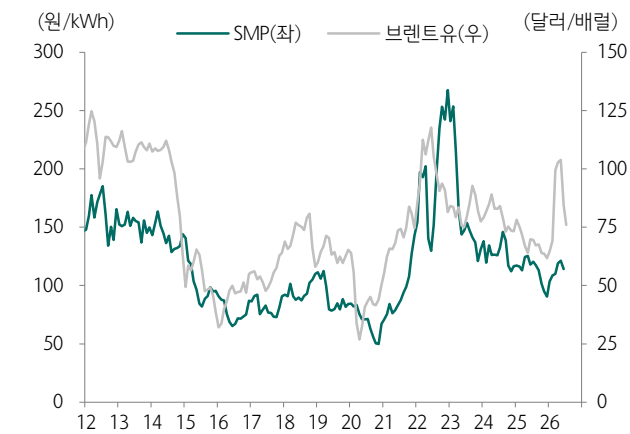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7월 3대 유종 평균 YoY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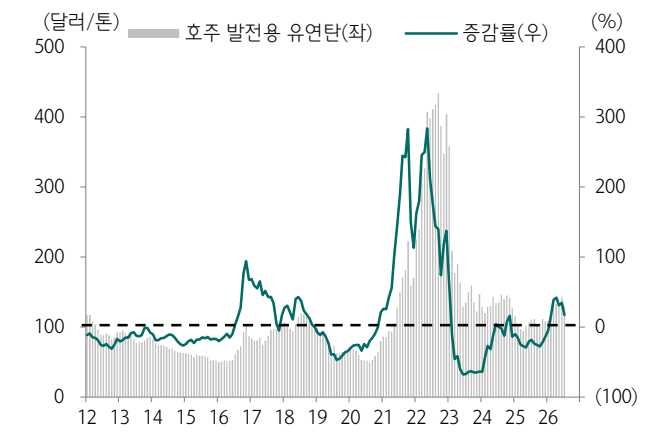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6월 SMP YoY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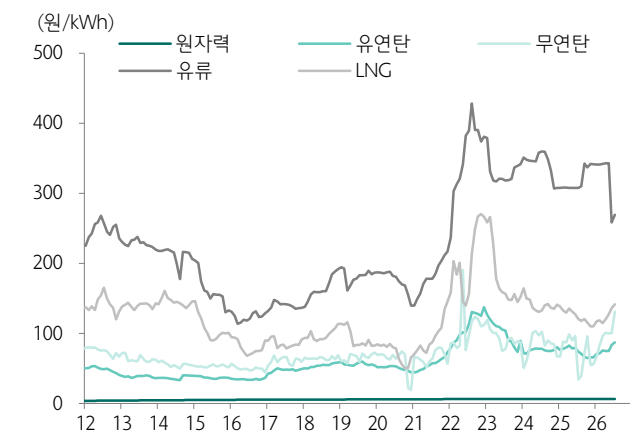
자료: EPSI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7월 YoY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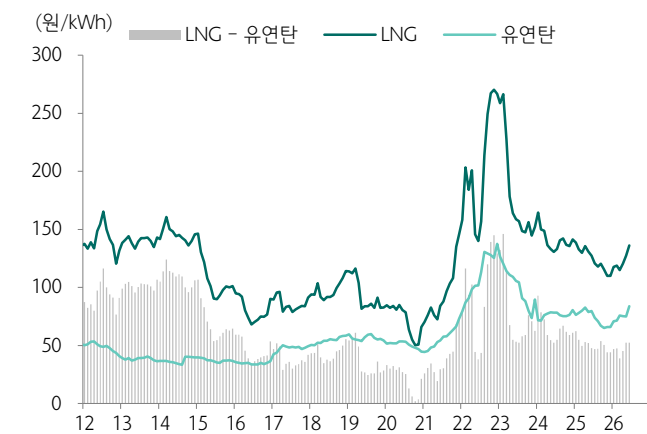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7월 LNG YoY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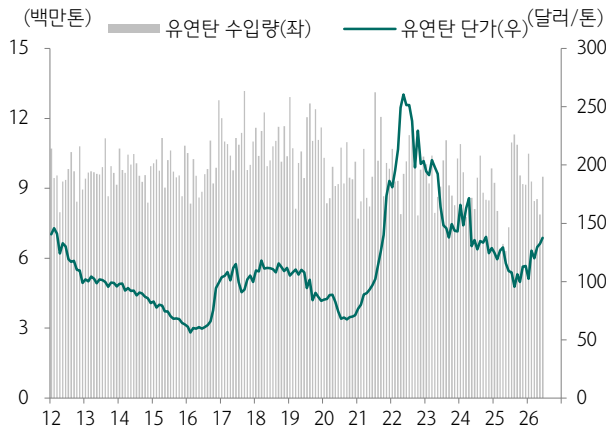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7월 54.70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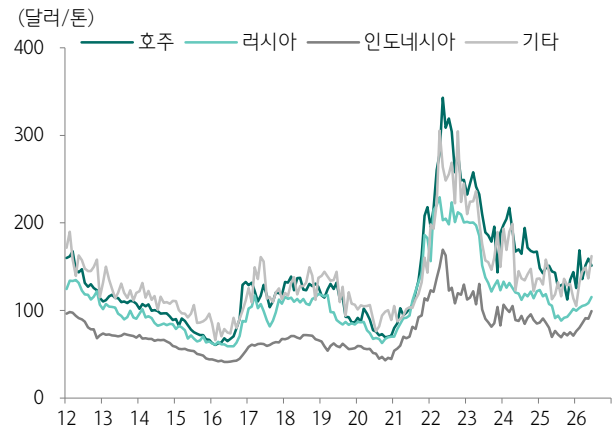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6월 YoY +29.6%/+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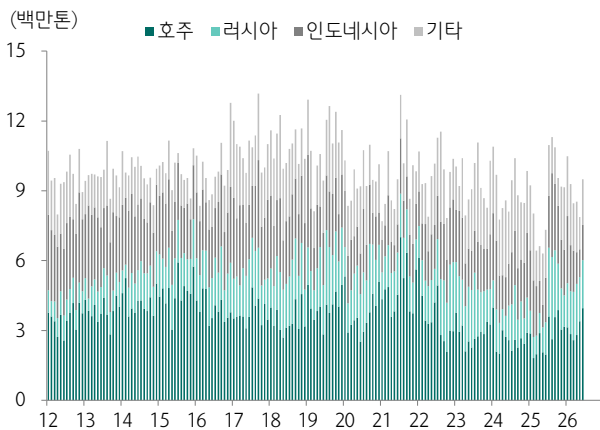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4. 지역별 유연탄 수입단가 (6월 호주 YoY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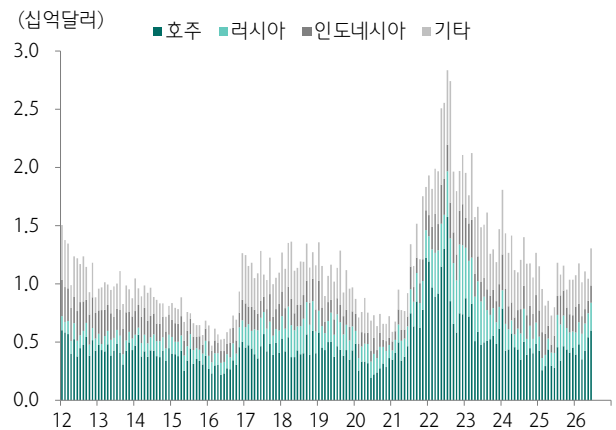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5. 지역별 유연탄 수입물량 (6월 호주 YoY +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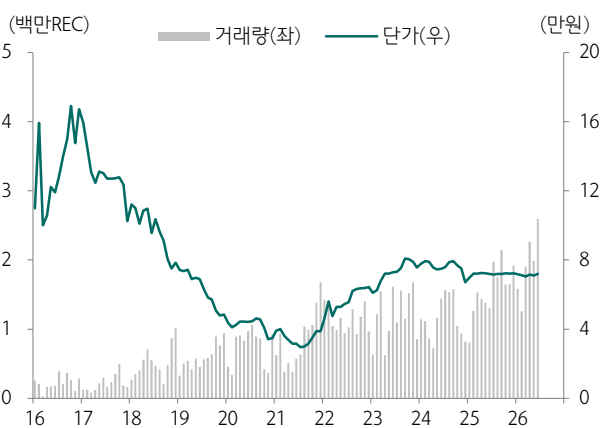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6. 지역별 유연탄 수입금액 (6월 호주 YoY +113.1%)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7. 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6월 YoY +99.1%/+0.1%)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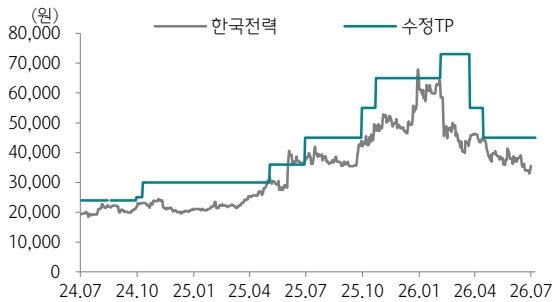
도표 18.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추이 (KAU25)



자료: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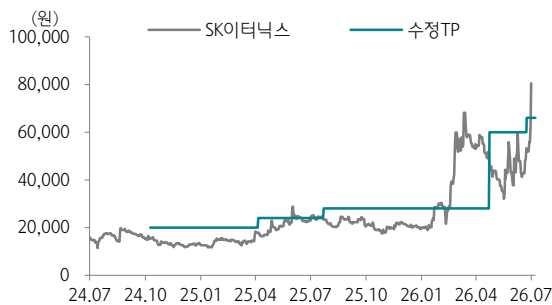
한국전력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14	BUY	45,000		
26.5.7	Neutral	45,000	-14.64%	-2.11%
26.4.15	BUY	55,000	-17.38%	-15.73%
26.2.27	BUY	73,000	-37.81%	-30.27%
25.11.14	BUY	65,000	-16.11%	4.46%
25.10.22	BUY	55,000	-18.18%	-9.91%
25.7.22	BUY	45,000	-15.71%	-2.56%
25.5.26	BUY	36,000	-7.36%	12.78%
24.11.1	BUY	30,000	-24.37%	2.33%
24.10.22	BUY	25,000	-8.74%	-7.6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SK이터닉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16	BUY	66,000		
26.5.15	BUY	60,000	-26.57%	-1.00%
25.8.14	BUY	28,000	5.81%	143.57%
25.4.28	BUY	24,000	-7.56%	20.42%
24.9.11	BUY	20,000	-27.71%	-0.4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7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5%	1.85%	0.00%	100%

* 기준일: 2026년 07월 21일